

“목포 주요 공공시설, 장애인 이용 어렵다”

7개 시민단체, 이동권 실태조사…심각성 제기·개선 촉구 근대역사관 등 접근 불가…“시장 후보들 대책 제시해야”

목포지역 장애인·시민단체들이 역사·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장애인 이동권 실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목포시 7개 시민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목포근대역사·문화예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 휠체어 접근이 어렵고 이동 동선이 끊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시설인 목포근대역사 1관(구 일본 영사관), 목포근대역사 2관(구 중앙척식주식회사) 등, 오거리 문화센터(구 동본원사) 등은 휠체어 이용자의 독립적 접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실제 일부 시설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사실상 어렵고, 전동 휠체어의 경우 구조적 제약으로 시설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근대역사·문화시설 현장 사진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관광객과 방문객도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장난 리프트 방지, 경사로 미설치, 점자블록 부실 시공 등 ‘무늬만 편의 시설’이라고 비판했다. 오거리 문화센터의



목포지역 장애인·시민단체들이 역사·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장애인 이동권 실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목포 근대역사관 2관(구 중앙척식주식회사) 전경과 목포오거리문화센터(구 동본원사) 전경.



목포지역 장애인·시민단체들이 역사·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장애인 이동권 실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목포 근대역사관 2관(구 중앙척식주식회사) 전경과 목포오거리문화센터(구 동본원사) 전경.

경우 설치된 리프트가 수년째 방치되며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접근성 문제를 넘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근 체육시설 조성에는 수석역원

의 주민 협세가 투입되는데 이동권 보장 시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목포시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이행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면 재검토와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정책 수립과 점검 과정에 장애인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목포시장

후보들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동권 보장을 공약에 머물게 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방치는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점검 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외계층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은 목포문화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지체장애인지원센터 목포시지회,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무안장애인지원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7개 단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gwangnam.co.kr

“집배원이 안부 살핀다” 나주,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

나주시가 고립과 위기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잇는 새로운 복지모형을 도입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사회적 고립이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을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우선 위기가구 50가구를 발굴해 관리할 계획이다. 나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필품 꾸러미를 제작하고,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현장 접점은 우체국 집배원이 맡는다. 집배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반복적인 방문을 통해 고립 가구의 변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긴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효정 나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고립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신영식 기자 cult@gjdream.com

“영암서 살아보고 정착 준비하세요”

군, 12일까지 ‘영암살래’ 주택 2차 입주자 모집

영암군에서 살아보고 지역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영암살래’ 입주자를 모집한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영암살래 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 총 2세대를 선발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영암살래’는 실제 거주를 통해 귀농·귀촌 정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영암군이 제공하는 주택에서 저렴한

게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120만원에 임대료 월 10만~30만원 수준이다.

군은 영암읍에 위치한 한옥형 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급한다. 주택은 방 2개를 갖추고 있으며, 생활가전이 마련돼 있어 입주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영암살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암군 외 지역의 거주자로, 선정 시 세대원 전원이 영암군으로 전입해야 한다.군은 전입 의지와 실제 거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입주 희망자를 위해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픈하우스를 운영해 주택 내부와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영암살래 주택은 실제 거주를 통해 지역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관심 있는 도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살래 주택 1차 입주자의 경우 20~40대 청년층이 실제 전입해 거주를 시작했으며, 지역 내 경제활동 참여와 귀농 준비 등 정착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살래 주택 인관

해남, 국내 육성 ‘호풍미’ 재배 확대

기후변화 대응·품질 우수

해남군은 병해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국내육성 신품종 고구마 ‘호풍미’의 재배 면적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덩이줄기썩음병 등 병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품종에 대한 농가 수요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3년 첫 보급된 호풍미 품종은 2024년 48ha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300ha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5년 기준 해남 고구마 재배면적의 약 30%를 차지

할 정도로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군은 재배면적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조직배양묘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약 19만8000본의 ‘호풍미’ 조직배양묘를 농가에 보급했다.

‘호풍미’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높은 당도와 우수한 식미, 외관 상품성을 갖춰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특히 병해충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고 상품성이 우수해 시장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조직배양묘 보급을 확대해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완도, 추천 여행지 ‘해조박람회·수목원’ 선정

완도군은 5월 추천 관광지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박람회’와 ‘완도수목원’을 선정했다.

‘Pre 완도국제해조박람회’는 7월까지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를 주제로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전시, 체험 등을 통해 해조류 가치와 해양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미역, 다시마 등 8종의 해조류 생물 체험, 해양 환경 VR, 김 뜨기·

곱기,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완도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으로 울창한 숲과 다양한 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 속 힐링을 원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관광객에게 ‘월별 추천 관광지’를 방문하고 군 문화관광 누리집에 후기를 남기면 특산품을 증정한다.

완도=김혜국 기자 knc1831@gwangnam.co.kr

< 태양의 알로에 > 슈퍼겔 맥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피부 건강

1일 면적 당당체
300mg 함유

유니베라 남양알로에 상무점에서 유니베라 50주년을 맞아 건강을 함께 실천하고 나누는 ‘생활 밀착형 건강 캠페인’ 멕시코 농장에서 키운 알로에 묘목을 나누어 드립니다.

2026년 05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uniVera 유니베라 유니베라 남양알로에 상무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상무타워 7층 (상무역 지하철 4번출구)
문의: 062.373.0058 대표이사 신영승